

七夕을 일본어로 읽으면?

우리나라의 칠월칠석과도 같은 일본의 다나바타(七夕)에는 일본 고유의 여러 행사들이 열리며, 각종 소원이 적힌 종이를 매달아 놓은 대나무 장식 등의 이채로운 풍경도 볼 수 있음

□ 다나바타(七夕)란?

- 6월말 경 일본을 찾게 되면 거리 곳곳에서 무언가가 적힌 기다란 종이가 매달린 대나무 장식을 만날 수 있음
 - 지하철 입구, 가정집 대문 앞, 상가 입구, 점포 앞 등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음
 - 이것은 다나바타 가자리(七夕飾り) 혹은 다케가자리(竹飾り)라고 하는데 1년에 한번 은하수를 사이에 둔 견우성과 직녀성이 만난다는 다나바타(七夕)에 이루어지는 행사임
 - * 여기에 쓰이는 대나무는 보통 대나무보다 얇은 것이 특징으로 사사(笹) 혹은 사사다케(笹竹)라고 하며, 왜 대나무를 장식했는지 유래는 확실하지 않으나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무로마치(室町)시대로 아마도 일종의 성스러운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음
 - * 일본에서 대나무는 이계(異界)와 명계(冥界)에 관련되어 있는 성스러운 나무로 알려져 있기 때문임
- 대나무에 걸린 종이는 단자쿠(短冊)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소원을 적는 데 사용됨

- 원래는 직녀에서 유래되어 재봉 실력이 향상되기를 기원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평화, 건강, 합격, 행복 등 기원하는 대상과 범위가 매우 다양함
- 가령 ‘요리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세요.’ ‘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’ ‘이번 입시에 꼭 합격할 수 있게 해 주세요.’ ‘애인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.’ 등 소망의 뜻은 개인적인 범주를 넘어 세계평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함
- 이렇게 만들어진 다나바타 가자리는 바다 혹은 강에 흘려보내는 관습이 있었으나 현재는 환경을 오염한다는 이유로 가까운 신사에 들고 가서 태워버림

□ 다나바타(七夕)의 기원

- 일본의 다나바타는 중국 전래의 풍습과 일본 고유의 민간 신앙이 어우러지면서 시작되었음
- 칠석(七夕)을 일본어로 읽으면 시치세키(しちせき)가 되는데 굳이 다나바타로 읽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
- 칠석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지기 전에 그와 비슷한 풍습이 이미 일본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음
- 다나바타는 七夕으로뿐 아니라 棚機로 표기하기도 함
 - * 이는 베틀로 베를 짜는 여자라는 뜻을 지닌 다나바타즈메(棚機つ女)라 불리던 여자가 베로 짠 천을 신에게 받쳤고, 그 신은 그 마을의 안위와 풍작을 가져다 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임
 - * 이렇게 전해지는 풍습이 칠석날의 베를 짜는 직녀로 이어지면서 이날을 다나바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함

□ 다나바타(七夕)의 풍습

- 다나바타에는 7월 15일 밤 즉 오봉(お盆)이 되기 전에 이승으로 찾아오는 선조의 영혼에게 입힐 옷을 베틀(機)로 짜서 선반(棚)에 올려놓던 습관도 있었음
- 다나바타에는 오봉을 맞는 준비(七夕盆)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으며 농작물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츠리도 열림
- 이때 건강을 기원하며 소우멘(素麺, 실국수)의 전신으로 알려진 사쿠베이(索瓶)라는 과자를 먹기도 함